

처음 이 책을 골랐을 때는 제대로 알아보지 못해서 제목만 보고 환경에 관한 이야기인 줄 알았다. 나중에야 이 책이 환경과는 거리가 먼 책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최종적으로 글을 읽고 난 뒤에는 작가가 말하고자 한 '이름을 붙이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책이 어려워서 아직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 책을 읽고 내가 한 생각은 한 대상을 명명함으로써 생기는 위험성에 대한 경계심을 갖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새를 '새'라고 부름으로써 각 개체의 특성을 보지 못하고 새라는 틀에 가두어버리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한계성을 부여해버리는 태도를 경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을 통해 작가의 롤모델이었던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라는 인물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는데, 책을 읽으며 느낀 그의 모습은 처음에는 주관이 뚜렷한 흔들리지 않는 총명한 학자로 생각했는데, 점점 권력과 돈, 정의를 따르지 못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을 하기도 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러한 욕망에 끌리지 않기는 쉽지 않지만, 자연에 대해 탐구하길 좋아하던 그의 어릴 적 모습을 보면서 그가 변치 않기를 나도 모르게 바라게 되었던 것 같다. 특히나 그가 우생학에 대해 강력히 주장하는 모습은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주장과 그의 명성으로 인해 당시 회복되지 않는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의 수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 책 속에 쓰인 그의 인생은 상당히 드라마와 같이 파란만장한 삶이었다. 학자가 되어 최고 권위를 누리고, 자신의 온 평생 바쳐 연구했던 연구물들이 파괴되기도 하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누군가를 살해하기도 한 (사실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정황상 데이비드의 짓이라고 의심되는) 그의 일생을 보며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던 것 같다. 그에 대해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겠지만, 최소 내가 이 책을 읽으며 느낀 그의 모습은 본인밖에 모르는 인간이랄까. 아무리 좌절적인 상황에도 낙담하지 않는 그지만, 후에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 저지르는 악행과, 자식을 편애하는 모습 등등. 상당히 자신의 감정과 상황에 충실한 인간으로 느껴졌다.

아무튼, 이 책이 작가의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로도 이어진다고 하는데, 사실 나는 책의 내용 대부분이 데이비드의 이야기로만 느껴져서 동성애에 대한 작가의 주장은 잘 모르겠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동성애에 대해서 달갑게 느끼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다. 이성을 사랑해야 한다는 어떤 보이지 않는 강박 때문에 나도 몰랐던 나를 발견할 기회를 정말 놓치게 되는 건지, 작가의 주장을 아직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러한 의견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 것 같다.

글을 마무리 하면서 이 책에 대해서 짧게 평가를 해보자면, 개인적으로 조금 어렵게 느껴져서 작가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지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책 한 권에 분류학자의 일생을 담기도 하며 자기반성적 이야기, 또 깨닫게 된 것들, 자연과학에 대한 이야기 등등을 잘 녹여낸 매력적인 책이었다고 생각한다. 글을 읽을 때보다는 읽고 나서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되었다.

#### 활동 후기

-독서 토론 활동은 처음이었는데, 활동을 통해서 도서 선정, 책을 읽는 목적 등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많이 느끼게 되었다. 더불어 친구들과 의견과 생각을 서로 공유하며 책을 읽으니 더 다양한 방면으로 생각해볼 수 있어서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다.